

초대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 마스키의 『朝鮮八域誌』 간행과 그 意義¹⁾

최보영
(동국대학교)

목차

1. 머리말
2. 조선 개항 전후 일본의 조선지리 정보수집과 육지측량
3. 『조선팔역지』 간행배경과 목적
4. 『조선팔역지』와 『택리지』의 구성 및 내용 비교
5. 맺음말

1. 머리말

『朝鮮八域誌』는 1881년 초대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 마스키(近藤真鋤)가 이중환의 『擇里志』를 발췌·번역하고 자신의 답사기를 덧붙여 만든 조선지리서이다.²⁾ 곤도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부산주재 관리관으로 조선에 파견된 일본 최초의 조선상주 외교관이다. 그는 개항장 내 일본인의 정착과 이들의 세력확장에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환의 『택리지』를 입수해 번역·소개하였다. 『택리지』는 무수한 필사본이 존재할 정도로 조선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다.³⁾ 곤도는 이 책을 입수해 당시 일본에 턱없이 부족했던 조선의 지리정보를 일본인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는 『택리지』 전부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번역했고 또 필요에 따라 『大典會通』 등의 참고자료와 본인이 직접 방문한 지역의 답사기를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지리서를 간행하였다. 따라서 곤도의 『조선팔역지』 간행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당시 일본이 필요로 했던 조선의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 시기 일본이 파견한 영사의 조선 내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곤도가 『조선팔역지』를 출판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리학계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다⁴⁾. 그리고 최근에는 역사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다루었다.⁵⁾ 그런데 이들 연구는 『택리지』가 일본과 중국에까지 번역되어 소개될 정도로 가치있는 저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칠 뿐 곤도가 『택리지』를 발췌·번역한 이유와 번역의 대상 그리고 증보한 내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조선팔역지』를 단순히 『택리지』의 번역서로만 봤던 것이다. 이는 저자인 곤도가 책표지에 ‘朝鮮 靑華山

人原撰'이라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책 서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택리지』의 내용을 '증보' 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본문에는 조선에서 입수한 『대전회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역의 답사기를 덧붙여 조선에 대한 정보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단순 번역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80년대 초 『조선팔역지』가 간행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 지리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고 『택리지』와 『조선팔역지』를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개항 초 일본의무성 관료의 조선인식과 조선침략과정의 전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조선 개항 전후 일본의 조선지리 정보수집과 육지측량

일본은 유신 전후 열강의 침략적 접근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당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전반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이해가 요구되었다. 자국 외의 지리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을 국경확정과 통상 및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결과 초기 일본의 이웃국 '隣邦'에 대한 조사는 대개 군사작전 전개에 필요한 『兵要地誌』의 작성과 외교, 통상 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에 집중되었다.⁶⁾ 이에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개항 전후 조선에 대한 정보는 외무성 관료들에 의해 수집되고, 또 서적으로 간행되어 일본 내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외무성 관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1833~1907)는 개항 전인 1875년 3월 『朝鮮聞見錄』을 발행하였다.⁷⁾ 정한론 주창자로 잘 알려진 사다는 1869년 왕정복고와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쓰시마 및 조선 파견에 대한 건의서로 태정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⁸⁾

『조선문견록』은 그가 외무성 관직을 버리고 재야에 있으면서 조선을 경험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메이지 원년(1868)부터 메이지 7년(1874)까지 조선과 메이지일본의 초기 교섭과정인 交際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환관상제의 조선 풍습과 雜誌가 실려 있다. 하권에는 武備·刑罰·山川·戶籍·儲蓄·欽承·官制 등이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대체로 막부시절 쓰시마에만 집중되어 있던 조선에 대한 정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제도적 측면으로 다양했다. 이러한 서술 경향은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1836~1908)의 『朝鮮事情』에서도 이어진다.

후술하듯이 곧도가 『조선팔역지』에서 언급했던 『조선사정』은 에노모토가 프랑스 선교사 찰스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의 1874년 저서 『韓國天主教會史(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의 서설(Introduction)을 1876년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다.⁹⁾ 달레의 서설 즉 『조선사정』은 조선 안의 천주교 상황을 서술하기에 앞서 당시의 서구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국가였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명한 이른바 '한국학 입문서'라 할 수 있다.¹⁰⁾

조선에 입국한 적은 없고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에는 海軍中將特命全權公使로 러시아에 근무 중이었던

에노모토는 일본정부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며 조선의 개항을 압박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천주교회사』 서적을 번역하기로 한 것이다.¹¹⁾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만을 발췌해 일본어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원본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고 심지어 원저자 달레의 서술과 달리 조선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이 전면 부각되어 번역서라기 보다는 각색 내지 편역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¹²⁾

이와 비슷한 시기인 1876년 4월 외무성 七等出仕 세와키 히사토(瀬脇寿人, 1822~1878)는 『雞林事略』을 발행하였다. 세와키는 1875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포셋(Posiet) 지방에 파견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상황과 현지 일본인의 활동을 보고하는 貿易事務官으로 활동한 인물이다.¹³⁾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金隣昇을 만나 그를 외무성 고문으로 채용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입수·정리할 수 있었다. 『계림사략』 또한 김인승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다.¹⁴⁾

『계림사략』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之一에는 김인승의 서문과 全國の位置·島嶼·山川·氣候·地味·産物·國郡都城附戶數·宿驛道路橋梁·政綱·文學並言語文字·風俗·貨幣·量田·里程이 있고 卷之二에는 兵制·試取·兵船·城壁·軍器軍裝·警急·烽燧·練兵·侍衛入直行巡附門開閉·符信·兵籍·免役·救恤休暇·留防·褒貶·軍刑·驛馬廐牧와 林深造의 後序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이처럼 일본은 외무성관리를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지리뿐만 아니라 정치제도·군사·풍속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서적들을 출판해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 갔다. 이러한 조선에 대한 정보수집은 군부에 의한 육지측량으로 이어지면서 노골적으로 침략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대한 정보활동은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직후 조선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쓰시마번에 요구한 명령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869년 5월 13일 外國官이 쓰시마번주에게 내린 명령서에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선, 조선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 즉시 답할 수 있는 쓰시마 관원 두 명을 東京에 상주시키고, 조선의 현재 動靜을 國王에서부터 아래로는 庶民에 이르기까지 조사할 것과 조선의 관직과 기타 제도 서류를 조사해 제출할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도, 물산 및 일본과 무역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 보고할 것이 담겨있었다.¹⁶⁾ 이는 비록 외국관이 조선과 조약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당시 일본 내 조선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기 조선에는 꾸준히 일본관리가 파견되었지만 조약체결에 초점을 맞춘 정보수집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지리정보가 일본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1872년 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에 방문할 때 당시 일본정부의 참의·육군원수와 近衛都督을 겸하고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육군중좌 기타무라 시게노리(北村重頼)와 육군소좌 뱃부 신스케(別府晋介)를 조선탐문을 위한 밀정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지리탐측을 위한 최초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들은 조선 지도를 입수해 사이고에게 송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¹⁸⁾ 1871년부터 실시된 이웃국에 대한 지역조사는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조사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시까지 이들의 사례가 유일한 것이었다.

정한논쟁이 비등하던 1875년 일본은 최초의 조선지도인 『朝鮮全圖』를 간행하긴 하지만 이 지도는 실측지도가 아니라 기존의 지도를 재편집한 것이고 그나마 실측지도는 1875~1877년 해군 수로국에서 발간한 해안지도가 대부분이었다.¹⁹⁾ 조선 내륙 지도가 일본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

도 1883년 이후의 일이다. 물론 1883년의 지도가 간행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조선 내륙을 실제로 측량했어야 가능한 일이다. 실제측량은 1878년 참모본부를 발족시킨 일본이 육군대위 카이쓰 미쓰오(海津三雄)를 조선에 파견한 것이 그 시초다. 카이쓰는 1877년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와 1878년에 조선 전문 참모관으로 한반도 전역을 정탐하였다.²⁰⁾

카이쓰는 1879년 11월 26일 일본육군 참모본부에 조선의 법전과 역사 및 지리 관련 서적의 구입을 요청해 『육전조례』, 『대전회통』, 『통사』 뿐만 아니라 『朝鮮八域誌稿本』을 韓錢 1貫 75文의 비용으로 구입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조선 내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²¹⁾ 『朝鮮地誌略』의 편찬에 인용된 서책 중에 하나로 『八域誌』가 활용된 것이 확인된다.²²⁾

이러한 밀정 내지 간첩대의 활동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리서인 『兵要朝鮮事情』(1885)과 『朝鮮地誌略』(1888)을 간행한다.²³⁾ 이는 일본정부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공식적으로 외교관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임오군란으로 맺은 조일수호조규속약의 “조선 내지의 遊歷 허가권”을 적극 활용해 조선 내지에 대한 정보수집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일본의 조선 내륙의 지리적·지형적 정보수집은 조선 개항 이전부터 시도되었고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보가 집대성되어 군부에 활용되었던 것은 1880년대 중후반 이후의 일이다.

3. 『조선팔역지』의 간행배경과 목적

곤도 마사키는 1876년 관리관 이후 1880년 초대 부산영사로 임명되었으며 1882년 초대 인천영사·1885년 주한일본공사관 서기관·1887년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역임하는 등 장기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영사와 공사로서 조일간 외교현안을 처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곤도가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주재한 사실은 조일 양국에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에게는 근대적 외교관의 상주를 용인한 셈이고 일본에게는 조선 침략의 첨병을 정식으로 파견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 부산관리관을 역임한 그가 1880년 관리관 명칭이 영사로 바뀔 당시 또다시 초대 영사로 파견되었던 점이나 1882년 인천이 처음으로 개항할 당시 초대 인천영사로 임명된 사실은 조선주재 영사로서 그의 역할과 능력을 일본정부가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40년 8월 시고쿠(四國) 에히메현(愛媛県)에서²⁴⁾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곤도는 조선으로 부임하기 전인 1874년 4월에 外務大錄에 임명되어 영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조선 파견 이후 약 15년 동안 조선에서 영사와 대리공사로 재직하면서 이 시기 대표적인 조선통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곤도 마사키의 조선 육로 답사와 조사는 일본 육군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면서 관리관과 영사라고 하는 공식 직책도 조선 내지를 여행·정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東京地學協會 회원으로 활동할만큼 곤도는 지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주재하고 있던 나라의 생소한 지리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²⁵⁾ 물론 곤도의 신분이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이익에 복무해야하는 영사였다는 점에서 그의 활동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심으로만 볼 수는 없다. 개항 직후 일본정부가 자국민에게 조선과 행해지는 무역과 조선으로 도항하는 것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선의 지리안내서는 필요했던 것이다.²⁶⁾

곤도는 당시 조선 내에서 발간된 지리서 중 가장 최신의 것이면서 접하기 쉬웠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

중환의 『擇里志』를 입수한다. 『택리지』는 지금까지도 『東國輿地勝覽』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지리서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²⁷⁾ 중국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백과전서식의 관찬지리서와 달리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독특한 시각과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찬지리서이다.²⁸⁾ 『택리지』는 지리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가미되어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⁹⁾ 예컨대 조선총독부도 『택리지』가 “조선 전역 내의 산수에 대한 기록으로 지세나 풍경의 뛰어난 것을 서술하고 선비의 거처할 곳을 선택하는 일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며 ‘八域志’ 또는 ‘博綜誌’, ‘山水錄’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⁰⁾ 이처럼 국가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일반인이 쉽사리 접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90여 종이 넘게 필사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택리지』를 곤도 영사가 입수하는 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소개하고 있는 『택리지』가 자국민의 조선 이주와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곤도는 이를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곤도가 『조선팔역지』를 출판한 목적과 방법은 그의提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하므로 다소 길더라도 전문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왕년에 내가 조선국 부산포에 있을 때 한 권의 謄本을 얻었다. 팔역지라는 제목이었다. 즉 靑華山人이 쓴 것이다. 이것을 열람함에 팔도·지리·산천·시세의 변천에 대한 대강을 볼 수 있었는데 베껴졌기 때문에 상대가 조악하고 글자의 오류로 잘못된 것이 많았다. 혹자가 말하기를 조선은 국가를 단아결은 해가 이미 오래되어 이웃국 청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망령되어 내지로 들어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 크게 드물다. 근래 프랑스 선교사가 몰래 들어가 살면서 수년 동안 능히 그 정치와 민속을 정탐해 글로 엮어 로마교황에게 바쳤다. 즉 榎本가 번역한 『朝鮮事情』이 그것이다. 이것으로 천하의 사람들이 비로소 조선의 情體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 공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책은 풍속에 상세하고 지리에는 철저히 않아 독자들에게 이따금 성에 차지 않아 안타깝다. 이 책은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虛文과 浮辭 혹은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 산천의 위치와 州郡의 형세에 있어서는 자못 간단명료하게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지금 우리 (=일본)와 조선이 수교통상을 맺어 날로 번성한 이때에 유일하게 사정서만 있고 지리지 가 없음 또한 유감이지 않겠는가. 혹 이를 교정·譯述하여 넓게 일반민들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만일에 대비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그 말을 옳다고 여겨 일찍이 아는 조선인에게 가서 우선 訛誤를 바로잡고 다음에 이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또 『대전회통』에 근거해 각 도 앞부분에 지방의 制勢의 대략을 두었고 각 편의 끝부분에 내가 일찍이 조사하고 연구한 바의 물산품목을 혹은 본문 가운데 곳곳에 脚註를 달았다. 혹은 특별히 나의 기행을 삽입하는 등 증보를 가해 두 책으로 하였다. 감히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바라건대 이 근본을 잃지 않았다. 조선인이 말하기를 靑華山人의 성은李이고 다른 말로는 淸江이라고 부른다. 『淸江漫錄』, 『淸江詩話』 등의 저술이 있고 문학으로서 칭송받으며 8~90년 전의 사람이다.”

곤도가 『택리지』를 언제 입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년에 부산포”에 있을 때라면 부산 관리관 재임시절일 것이다. 당시 그는 『택리지』의 수많은 필사본 중에서 아마도 『팔역지』라는 제목의 필사본을 입수했던 것 같다. 이 중환은 『택리지』의 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천, 인물, 풍속,

정치, 교육 등의 연혁, 治亂, 得失, 美惡 등을 차례로 기록하고 살만한 곳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¹⁾ 『택리지』는 필사자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목으로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예컨대 失勢한 사대부가 낙향하면서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뜻에서 『八域可居地』, 시인 목객이 좋은 산수를 찾는다는 뜻에서 『진유승람』과 『東國山水錄』, 상업하는 사람은 각 처의 물산과 교통을 알기 위해 『동국총화록』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八域志』, 『동약소관』, 『형가요람』 등 필사의 목적과 필사자에 따라 다양한 제목으로 유통되었다.³²⁾ 이는 『택리지』에 담겨있는 일부의 내용을 특화시킨 것이지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택리지』가 담고 있는 정치·경제·사회·풍수지리에 대한 서술은 지역적인 배경에 입각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리서로 각광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³³⁾ 이는 곧 조선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게도 조선을 알기 쉽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도가 입수한 『팔역지』 필사본은 그리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조선 팔도의 지리와 산천 그리고 지역의 시세의 변천 등을 알 수 있어 만족한 듯 하다.

아울러 곧도는 당시 조선이 문을 닫아 걸은지 오래되어 조선의 사정을 전하는 글이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그나마 『조선사정』이라는 책이 있어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곧도는 『조선사정』의 저자인 프랑스 선교사 달레와 번역자인 에노모토에 대해서는 “공이 높다”며 칭송하면서도 『택리지』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虛文과 浮辭 혹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조선인에 대해 멸시와 불신감을 표명하였다. 서양인과 일본인은 믿을 수 있고 곧도 크지만 조선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택리지』를 온전히 번역만 하지 않았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인에 대한 곧도의 비판적 인식체계는 『택리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의 첨가 내지 비교 작업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그가 주로 참고한 『대전회통』은 1865년에 고종의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통일법전으로 조선 내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다. 1870년 補刊되었으므로 곧도가 참고한 『대전회통』은 당시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일한 법전인 셈이다.³⁴⁾ 또 곧도는 『팔역지』와 『대전회통』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곧도는 이중환에 대해 “『淸江漫錄』, 『淸江詩話』 등의 저술이 있고 문학으로서 칭송받으며 8~90년 전의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팔역지』의 위상과 함께 자신의 번역서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곧도는 당시 조선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지리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한 『택리지』를 번역해 지금까지 없던 지리지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다.

4. 『조선팔역지』와 『택리지』의 구성 및 내용 비교

곧도는 1880년 1월 17일 판권을 획득한 후 1881년 5월 25일 도쿄에서 『조선팔역지』를 출판하였다. 그는 『조선팔역지』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범례에서 설명해 두었다. 범례를 통해 『조선팔역지』가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쓰여졌으며 어떤 참고자료를 이용했는지 밝히고 있다.

1. 본문 중 몇 리라고 한 것은 모두 조선의 里法이고 이 1리는 대개 일본의 4丁이다. 단 내가 말로 써 몇 리라고 한 것은 우리의 里法에 따른다.

2. 내가 증보한 편의 말머리는 한토막 아래에 썼고 각주에는 按이라는 글자를 덧붙이는 등 그 혼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3. 생산품목은 책의 근거로 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내가 보고들은 바를 들어 당분간 이를 메웠다. 혹시 훗날 좋은 책을 얻게 되면 다시 이를 등록할 것이다.
4. 호수와 인구는 일찍이 조선의 관리가 전해준 임자년 조사부에서 초록하였다. 호수 총계는 1,683,117 호이고 인구는 7,153,826 명이다. 후에 육전조례 갑자년의 조사를 보면 호수는 1,604,148 호이고 인구는 6,858,522 명이다. 나는 아직 조례가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따라서 일단 많은 쪽을 따르기로 한다. 임자는 즉 일본력 嘉永 5年 (1852) 이다.
5. 원산, 부산, 진강, 아산, 인천, 경성, 교동 등은 내가 일찍이 지나다녔던 곳이다. 記文이 서투르고 비루함을 면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실제로 다녔던 곳인만큼 감히 이를 덧붙여 수록한다.

우선 조선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두었다. 조선과 일본의 거리단위는 조선 1 리와 일본 4 정이 같은 것으로 조선 10 리가 일본의 1 리가 된다.³⁵⁾ 곤도는 원문의 거리를 일본의 거리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각주로 달거나 따로 몇 리라고 달아 둔 것에 대해서만 자국의 거리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지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단위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번역문을 기준으로 자신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按’이라는 글자를 넣어 표기하거나 번역한 원문보다 한 토막 아래부터 글을 시작하는 등 번역원문과 차이점을 두었다. 이 장치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택리지』의 내용과 자신이 증보한 부분을 쉽사리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조선의 생산품목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 곤도는 각 지방의 생산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당한 참고자료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생산물은 지리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답사한 곳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재하는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로는 조선의 호구와 인구를 지역별로 정리해 두려고 하였다. 당시 곤도가 입수한 자료는 임자년 조사부와 『육전조례』였는데, 『육전조례』의 정확한 조사 시기를 몰랐던 곤도는 그 두 자료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임자년 조사부를 채택하였다. 인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간 증가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곤도는 『육전조례』보다 호구와 인구가 많은 임자년 조사부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육전조례』는 1865년에 완성되었고 이것의 근거가 된 자료의 갑자년은 1864년이다. 따라서 곤도가 언급한 嘉永 5年 즉, 1852년의 임자년은 갑자년보다 12년 앞선다. 즉 『육전조례』의 수치가 최신 정보가 되는 것이다. 곤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달리 임자년에서 갑자년 사이에 조선의 인구는 실제로 감소했다. 1852년부터 1864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이 지속되었고 임술민란이 일어날 정도의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와 춘대추납의 폐단은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³⁶⁾ 이와 함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³⁷⁾ 실제로 조선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도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 버렸다. 이는 곤도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상당히 무지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곤도는 『조선팔역지』를 卷之一과 卷之二, 두 권으로 구성하였다. 卷之一에는 평안도·함경도·강원도·황해도·전라도·경상도를, 卷之二에는 충청도·경기도·백두산을 배치하였다.³⁸⁾ 그런데 『택리지』와 『조선팔역지』의 목차를 대조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글의 구성과 순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 『택리지』와 『조선팔역지』의 구성비교 >

『택리지』		『조선팔역지』		차이점
사민총론				택리지 사민총론 생략
팔도총론	평안도	卷之一	평안도	수록 순서 바뀜.
	함경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鎭江記)	수록 순서 바뀜.	
	전라도	경상도 (釜山記)	답사기 수록	
	충청도	卷之二	충청도 (牙山灣記)	답사기 수록
경기도	경기도 (自仁川至京城記, 僑桐記)			
복거총론	지리			택리지 복거총론 일부 생략
	생리			
	인심			
	산수	卷之二	백두산	
총론				택리지 총론 생략

우선 곤도는 『택리지』의 수록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곤도는 강원도와 황해도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수록 순서를 바꾸었다. 이에 대해선 곤도가 남긴 기록이 없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곤도가 생각한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두 번째, 해당 지역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해 수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곤도는 「鎭江記」·「釜山記」·「牙山灣記」·「自仁川至京城記」·「僑桐記」등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수록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천주교회사』 서설은 1876년 조선이 개국하기 이전에 조선에 잠입해 활동하고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프랑수아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 또한 높다. 이것이 서양인들에게는 조선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던 셈이다.³⁹⁾ 하지만 『한국천주교회사』에서 활용한 자료는 대부분 1845년에서 1866년까지의 것이고 개항 이후 변화되고 있던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었다.⁴⁰⁾ 즉 곤도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개항 후 조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아무리 조선인에 의해 직접 쓰여진 『택리지』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조선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으므로 곤도는 이를 저본으로 삼되 당시 일본인이 필요로 하는 조선의 정보를 최대한 담으려고 하였다. 이는 조선의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과 『대전회통』 그리고 일본 측 자료인 『朝鮮征伐記』 등의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서 자신도 직접 목도한 조선의 지리와 환경, 풍속 등의 정보를 포함시킨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답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리지』 서술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중환은 각지의 지리내용을 서

술할 때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각지의 독특한 물산이라든지 기후 등을 첨가하여 독자의 즐거움을 유도한데 비해 곤도는 자신이 답사한 지역의 위치, 거리, 지명, 인구, 물자의 유통 등 각지의 객관적인 정보만을 주로 추가하였다. 예컨대 『조선팔역지』에 수록되어 있는 『鎭江記』는 1879년에 이미 『東京地學協會報告』에 실렸던 글로 이미 도쿄지학협회에 보고한 것이다. 곤도는 『東京地學協會報告』의 「진강기」에서 1879년 5월 하나부사공사를 수행해 조선의 개항장을 물색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진강 일대의 지리와 지형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⁴¹⁾ 또 『택리지』에는 충청도 편에 진강으로 구분되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설명하는데 반해 『조선팔역지』에는 전라도편 말미에 실었으며, 진강이 구분하는 지역의 위치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섬·鎭·산물의 유통·인가의 호수 등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구성체제와 서술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⁴²⁾

세 번째, 곤도는 『택리지』의 모든 내용을 번역하지 않았다. 『조선팔역지』 서론에서 곤도 자신이 밝힌 것처럼 조선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기였는데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곤도가 입수한 필사본 『팔역지』가 이미 필사자에 의해 발췌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 곤도는 자신이 입수한 내용 모두를 번역한 것이 된다. 둘째로 필사본 『팔역지』에는 있었으나 곤도 스스로 『팔역지』의 일부만을 취사선택한 경우이다. 위의 <표>를 보면 곤도는 택리지의 사민총론과 복거총론의 대부분 그리고 총론은 번역하지 않았다. 사민총론은 조선의 네 계급에 대한 설명부분으로 곤도가 원했던 지리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조선사정』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므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복거총론은 대부분 地理·생리·인심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사민총론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중환은 사람이 사는 곳, 사는 터의 선택지로서 땅이 갖는 중요성을 지리와 생리 다음으로 인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복거총론에 담아 두었다.⁴³⁾ 사람이 평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지리·생리·인심의 형태를 꼽았으며 정서적 발양을 위해 사는 곳 인근에 산과 물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곤도는 이중환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좋은 곳에 대한 정보를 빼버리고 오히려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산수에 있는 백두산만을 번역해 실은 것이다. 여기서 곤도가 『택리지』를 번역한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조선 내에서 여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도의 관심은 조선 내지 깊숙한 살기 좋은 땅보다 일본인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우선 조선의 전반적인 지리정보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곤도는 조선의 지리에 초점을 두고 부족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를 중심으로 『조선팔역지』를 출간한 것이다. 따라서 곤도가 입수한 『팔역지』가 『택리지』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는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정보와 함께 자신의 답사기를 덧붙이는 등 전혀 새로운 조선지리서를 제작·간행한 것이다. 이러한 곤도의 활동은 개항장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던 영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적 역할이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조선팔역지』의 출간이 일본정부와 민간에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후 『조선팔역지』보다 자세한 지리정보가 입수되면서 『병요지지』와 같은 지리서와 조선 지도가 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팔역지』는 『조선사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흥행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후 가장 저명한 지리 관련 잡지인 『地學雜誌』의 논문에서 『조선팔역지』내용이

인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리연구자들에게는 꾸준히 회람되면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⁴⁾

5. 맺음말

곤도 마사키는 초대 부산주재 영사로, 재임 기간에 『팔역지』라는 이름의 『택리지』를 입수해 『조선 팔역지』를 간행하였다. 이는 조선에 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일본에 조선의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이주와 무역을 장려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곤도가 『조선팔역지』를 간행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원저서인 『택리지』와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당시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조선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개항장 구축과 자국민 이식이 라는 영사 과건의 목적 및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곤도가 조선에 관리관 내지 영사로 파견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다. 물론 개항 전후 『조선문견록』, 『조선사정』, 『계림사략』 등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이 서적들은 조선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일본인에게 조선안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곤도는 조선의 지리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택리지』를 입수해 번역한 것이다.

곤도는 『택리지』를 전부 번역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고 번역했는데 그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의 지리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택리지』가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대전회통』·『동국여지승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으며 자신이 관리관과 영사 시절 공식적으로 유람했던 조선 각지의 답사기를 덧붙임으로써 지리서의 내용을 현장감있게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곤도는 초대 부산 관리관과 영사로 재임하면서 더욱 많은 일본인 이주자의 편의를 위해 조선 지리에 초점을 맞춘 『조선팔역지』를 간행함으로써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조선의 지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또 곤도는 단순히 일본정부의 훈령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영사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국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덧붙여 『조선팔역지』를 『택리지』의 단순번역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며 추후 곤도가 『택리지』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번역했고 각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注

- 1) 이 글은 「RiCKS 제 11 회 차세대연구자포럼」(2016.07.30.~08.01) 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2) 朝鮮 靑華山人 原撰·近藤眞鋤 和解, 『朝鮮八域誌』全, 日就社, 1881.
- 3) 박용수, 「同書異名の 책이 무려 50 여 종 : 현실체험에 바탕을 둔 이중환의 경제사상」, 특별기고 택리지의 재발견 2, 『월간 산』, 2003, 7, 216 쪽.
- 4) 예경희, 「靑華山人 李重煥의 撰里志 研究 序說」, 『博物館報』 21, 2008, 104 쪽. 예경희는 곤도의 『조선팔역지』번역·출판과 함께 1885년에 중국인 江景桂가 한문으로 번역한 『朝鮮地理小志』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택리지』가 국내보다 국외에서 먼저 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5) 최혜주, 「일본 東京地學協會의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1, 2010.
- 6) 윤해동, 「일본육군 참모본부의 “군사조사” 활동과 식민주의 역사학」, 『대구사학』 119 호, 2015, 218 쪽. 이러한 작업은 대개 1871년 병부성에 육군참모국이 설치되고 지리에 대한 측량과 지도 제작이 개시되었으며 이들은 이후 일본육군 陸地測量部 성립의 배아가 되었다 (윤해동, 위의 논문, 220 쪽).

- 7) 佐田白茅, 『朝鮮聞見録』, 1875 (日本国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所蔵).
- 8) 사다 하쿠보의 활동과 조선인식에 대해서는 심기재 (『근대 일본인의 조선인식 - 佐田白茅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40, 1998 과 「明治 일본의 조선지식 - 佐田白茅의 『조선문견록』 에 대하여」, 『일본역사연구』 15, 2002)의 연구를 참조할 것.
- 9) 달레는 파리의방선교회의 신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에는 입국한 적은 없지만 인도를 비롯해 아시아 각지를 임지로 다녔던 인물이다. 그는 제 5대 다브뤼 司敎가 1866년 서울에서 처형되기 전까지 수집.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한국천주교회사』의 저술에 착수하였고 1874년에 완성해 간행했다 (タレ 著·金容權 譯, 『朝鮮事情』, 平凡社, 1979, 332 쪽). 우리나라에서는 『朝鮮敎會史序說』 (李能和·尹志善 共譯, 1947) 이라는 표제로 번역·간행되었다가 후에 정기수에 의해 『朝鮮敎會史序論』 (탐구당, 1966) 으로 재번역되었다.
- 10) 샤를르·달레 저·정기수 역, 『朝鮮敎會史序論』, 탐구당, 1966, 譯者序文 iv~v : 신영언, 「Claude Charles Dallet 著 『韓國天主教會史』의 일본에서의 수용 - 榎本武揚의 『朝鮮事情』 (1876) 번역의도 -」, 『日本言語文化』 21, 2012, 343 쪽.
- 11) 박현수, 「日帝의 朝鮮文化研究」, 『민속학연구』 2, 1995, 13 쪽.
- 12) 신영언, 위의 논문, 2012, 349~350 쪽.
- 13) 최보영, 「개항 초기 (1876~1880)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과정·활동과 그 특징」, 『동국사학』 제 57 집, 2014, 473~474 쪽.
- 14) 瀨脇寿人·林深造 同輯, 『雞林事略』, 英佛書林, 1876年 4月.
- 15) 책 제목에 初篇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속편이 있을 것 같으나 찾을 수 없었다.
- 16) 『朝鮮事務書』 第 3冊, 「朝廷ヨリ宗氏ヘノ達シ」; 함동주, 「근대 초기 일본의 외교체제 수립과 동아시아정책 - 조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梨花史學研究』 제 29 집, 2002, 6 쪽.
- 17) 渡辺惣樹, 『朝鮮開國と日清戦争』, 草思社, 2014, 57 쪽.
- 18) 박현수, 「日帝의 朝鮮文化研究」, 『민속학연구』 2, 1995, 13 쪽 : 山室信一, 「文化相渉活動としての軍事調査と植民地經營」, 『人文學報』 91, 교토대인문과학연구소, 2004, 236 쪽. 사이고의 밀정 과정은 征韓의 시기를 조율하고 실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측면이 있다.
- 19)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2011, 27 쪽.
- 20) 남영우, 위의 책, 2011, 40~41 쪽.
- 21)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소장 자료, 「(明治 12년) 11_26 六典条例外購求申出」, ref #C07080184300. 이 때 카이쓰가 구입한 『朝鮮八域誌稿本』은 조선인에 의해 필사된 『택리지』일 가능성이 높다.
- 22) 윤해동, 「일본육군 참모본부의 “군사조사” 활동과 식민주의 역사학」, 『대구사학』 119 호, 2015, 231 쪽.
- 23) 박현수, 위의 논문, 1995, 13 쪽 : 「日帝의 식민지 調査機構와 調査者」, 『정신문화연구』 제 21 권 제 3 호, 1998, 9 쪽 ; 山室信一, 위의 논문, 2004, 239 쪽. 박현수의 논문에 의하면 『병요조선사정』은 보병대위 高城義孝가 작성한 조그만 책자라고 하나 필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 24)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編, 『新編 日本外交史辭典』, 山川出版社, 東京, 1992, 329 쪽. 곤도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滋賀県 近江大津 출신이라는 이견도 존재한다. (『日本人名大辭典』, 平凡社, 1990, 671 쪽)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신 立命館大学の 石川亮太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외무성직원록 중 1872년 官員全書 외무성 편을 보면 곤도는 외무대륙으로 “伊豫石鐵縣人 (1873년에 에히메현 관할이 됨)”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나머지 기록 (1877~1879) 에도 모두 “愛媛県土族”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따른다. 다만 1881년 외무성직원록에는 곤도를 “東京府土族”으로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출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요구된다.
- 25) 최혜주, 「일본 東京地學協會의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1, 2010, 247~248 쪽.
- 26) 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옮김,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2006, 17~18 쪽.
- 27) 박용수, 「同書異名의 책이 무려 50여 종 : 현실체험에 바탕을 둔 이중환의 경제사상」, 특별기고 택리지의 재발견 2, 『월간 산』, 2003, 7, 216 쪽.
- 28) 예경희, 「靑山華人 李重煥의 撰里志 研究 序說」, 『博物館報』 21, 2008, 89 쪽.
- 29) 이찬, 「한국지리학사」,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著, 『한국문화사 대계 (III) : 과학기술사』, 1970, 681~734 쪽.
- 30)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大正 8[1919], 219 쪽 ; 「撰里志 李重煥 著 寫本, 朝鮮全域内の山水録にして形勝を敘述し士の居里を擇ふべき事を詳説せり一に八域志と云ひ又博綜誌, 山水録とも稱す. 李重煥 字は輝祖, 清潭は其の號なり驪州の人震齋休の子にして肅宗庚午に生れ癸巳文科に登り英祖の時に歿す官兵曹正郎に止る.”
- 31) 李重煥 原著·盧道陽 譯, 『택리지』, 세계고전 전집, 한국자유교육협회, 1972, 299~300 쪽.

- 32) 이중환 저·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5, 8 쪽.
- 33) 오세창, 「택리지의 풍수지리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1-1, 2003.
- 34)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 35) 박한민,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 2014, 147 쪽.
- 36) 김무형·박희진, 「19세기 인구감소와 조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하락 -경상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6 (1), 2003, 74~79 쪽. 이 기간 조선은 1853·1856·1862년에 홍수로 인한 흉년이 발생했다. 특히 1853년은 대흉년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 37)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김신희, 「1821년 콜레라 창궐과 조선 정부 및 민간의 대응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콜레라는 1821년 처음으로 중국을 통해 조선에 전래된 이후 왜관을 거쳐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일본에서 발병한 콜레라가 개항장을 통해 다시 조선에 전파되는 악순환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38) 목차의 주된 흐름을 보면 한반도의 위쪽에서 출발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치우친다. 그리고 두 번째 권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즉 서울 쪽으로 서술하고 있는 인상이다.
- 39) 닌레 著·金容權 譯, 『朝鮮事情』, 平凡社, 1979, 331 쪽.
- 40) 닌레 著·金容權 譯, 위의 책, 1979, 342 쪽.
- 41) 近藤眞鋤, 「鎮江記」, 『東京地學協會報告』 1-9, 1879.11.29., 1~5 쪽. 앞서서 조선을 정탐했던 카이쓰 미쓰오(海津三雄)의 경우에도 자신의 조선에서 견문한 내용을 『동경지학협회보고』에 실었다. 그는 『東京地學協會報告』에 「朝鮮國漢城ノ地形概略」, 「漢城風俗」, 「朝鮮元山津記事附圖」, 「朝鮮北部内地ノ實況 慶興紀行(明治十六年自十月至十二月)」 등의 제목으로 조선의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였다(日本国立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所蔵).
- 42) 朝鮮 靑華山人 原撰·近藤眞鋤 和解, 『朝鮮八域誌』全, 日就社, 1881, 84~93 쪽.
- 43) 이중환 저·이익성 역, 위의 책, 2005, 135 쪽
- 44) 小藤文次郎, 「韓國南部の地勢」, 『地學雜誌』 vol. 13, No. 6, 1906, 350 쪽.